

“과학 호기심 쑥…커서 지스트 같은 공대 갈래요”

광주과학기술원, 초등생 대상 ‘시 과학캠프’ 개최

시 특화체험으로 어린이 과학기술 진로탐색 지원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여름방학을 맞아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하고 이공계 진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GIST와 함께하는 AI 과학 캠프’를 개최했다.

‘과학캠프’는 GIST의 사회공헌단 ‘피움’이 운영하는 지식나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IS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캠퍼스로 초청해 진행했다.

올해 캠프는 MOU 체결 기관인 육군 상무대와 광양제철의 추천을 받은 6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열어 호응을 얻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GIST 교수진의 AI 특강을 비롯해 캠퍼스 투어, 재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실습, 연구실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의 강의실·연구실, 캠퍼스를 직접 체험했다.

했다.

첫 순서로 AI융합학과 윤정원 교수가 ‘의료로봇 핵심기술과 미래: 입는 로봇 및 나노로봇’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멘토와 함께하는 키트 수업’에서는 GIST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를 직접 조립하고 코드를 입력해 작동시키는 실습을 통해 AI 기술의 원리를 체험했다.

또 우주발사체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GIST 학생 동아리 ‘행성탐사연구소’가 진행한 로켓발사 체험에서는 모형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관찰하며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실습 후에는 캠퍼스 내 첨단 연구시설 공간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TOP500’에 오른 ‘드림아이(Dream-AI)’를 운영하는 슈퍼컴퓨팅센터를 방문해 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여름방학을 맞아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하고 이공계 진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GIST와 함께하는 AI 과학캠프’를 개최했다.

형 연산 장비의 실제 활용 현장을 살펴봤다.

이와 함께 중앙도서관과 주요 건물을 둘러보며 강의실과 학습 공간 등 캠퍼스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도 제공됐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GIST가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과학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AI 과학캠프가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마음껏 키우고, 미래의 ‘과학 리더’를 꿈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GIST 사회공헌단 ‘피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이공계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호우 피해 복구 참여

함평천지전통시장 등 찾아 주민 애로사항 청취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침수된 상가의 정리 작업에도 직접 참여해 복구에 힘을 보태며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나산면 원신리 하천 준설 현장도 찾아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적인 의견도 수렴했다.

이 의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의회는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함평 지역에는 지난 3일 시간당 최대



147.5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함평읍내 상가와 주택을 비롯한 함평천지전통시장 일대가 광범위하게 침수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주택과 상가가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이고, 내부 집기·물품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함평군 추산 약 149억원의 피해 규모가 집계됐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탄탄한 산학 협력 모델로 지역과 동반성장

동강대 RISE사업단, 세방전지(주)와 업무협약 체결

동강대학교가 본격적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나서며 산업체와 탄탄한 산학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과 동반성장에 힘을 모은다.

동강대 RISE사업단은 최근 교내 교수연구동 1층 글로벌존에서 세방전지(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강대 이민숙 총장과 세방전지(주) 박원재 공장장이 참석해 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특히 동강대와 세방전지(주)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산학연계 모델을 탄탄히 구축해 지역 산업을 이끌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현장 역량을 높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학과 기업의 상생 산학협력 모델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세방전지(주) 박원재 공장장은 “RISE 사업이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채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강대는 교육부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2025년 RISE 사업’에서 신청한 11개 단위과제 모두 선정됐다.

동강대는 △인재 SKILL UP △기업 UP △지역 사회 GROW UP △대학 INNO UP 등 4개 프로젝트에서 11개 단위과제를 수행한다.

지난달 8일에는 광주RISE센터와 대학 RISE 추진사항 공유를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장성군, 공무원 참여형 ‘청렴 토크 콘서트’ 개최

청렴 토크·공연 등 콘텐츠…“신뢰받는 공직사회”

장성군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관행적인 행사가 아닌 연극·음악 공연,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었다.

시작은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가 열렸다. 무대 정면 스크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클릭의 공직자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면 질문을 전송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창이 열렸다.

공직자들이 전송한 질문은 바로 스크린에 표출됐는데, 이를 김한중 군수가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



행됐다. 바람직한 공무원상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부패방지교육’ 시간에는 한유나 전문강

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청렴 연극’ 순서에선 이효용, 신정만 배우가 ‘갑질’을 소재로 유쾌한 상황극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행사의 대미는 ‘리베로 밴드’가 장식했다. 귀에 익숙한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청렴 실천의 각오를 다졌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렴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청렴한 장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장성=이향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PEOPLE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영광 군수·간부 수해복구 ‘구슬땀’ 군부대도 훈련 대신 봉사활동 전환

영광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남면과 염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군수와 실단과소 간부들이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영광군 전체 피해액은 약 71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군남면은 약 30억원, 염산면은 약 1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18일과 19일 이틀간 전역의 복구를 돕는 동시에 피해 규모가 큰 군남면과 염산면의 농가·주택·마을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1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을지연습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영광군이 훈련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군은 훈련 취지를 살리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형 봉사활동’으로 전환했다.

장제일 군수와 간부들은 토사 제거, 사면 정리, 폐기물 운반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영광군은 이번 봉사활동에 군 공무원뿐 아니라 유관기관·민간단체·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과 심리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건보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여름철 감염병 예방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최근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함께 광주중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 급증과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들은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 대처법에 대해 안내했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도 홍보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OX 건강 퀴즈, 경품 뽑기, 홍보 리플렛 배부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펼쳐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느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지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	--

운세 (음력 6월 26일)

쥐 48년생 너무 큰 기대는 실망도 크다 60년생 의견 일치되지 않더라도 참으라 72년생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면 미래가 밝다 84년생 유혹을 주지하지 않으면 남편 96년생 발 벗고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 토끼 51년생 노력한 결과에 기대하지 말라 63년생 오랜만에 시원함을 맛본다 75년생 손을 함부로 쓰지 말라 87년생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99년생 애정운은 하락세 말 54년생 지인의 병문안 후 상심이 크다 66년생 요령을 보인다면 효과가 커진다 78년생 귀하것이 아니니 넘겨 주라 90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다 돼지 57년생 우선은 말 할 수 없으니 저주라 69년생 실수를 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 81년생 물이 깊어야 큰 고기가 모이는 법 93년생 뗏사람을 공경하면 득을 본다	소 49년생 말만 하다가는 시기를 놓친다 61년생 뜻밖의 횡재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 73년생 경솔한 행동은 친한 사람도 잃는다 85년생 정신적 피로가 쌓인다 97년생 주위의 조언 무시하지 않도록 하라 황소 52년생 미묘한 갈등이 해소 될 것이다 64년생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니 조심 76년생 너무 많은 욕심은 허탈감 초래한다 88년생 나라도 우선 빠져나오고 보라 양 55년생 주시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67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두어야 79년생 배풀 수 있을 때가 행복한 때 91년생 화를 불러들이니 경계망동 주의 개 58년생 외출을 삼가하라 70년생 정당하지 못한 처사를 조심하라 82년생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94년생 주장이 강하면 손해 보는 날	호랑이 50년생 외나무다리 건너듯이 위태로운 날 62년생 모든 일에서 효과를 얻는다 74년생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단합하라 86년생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낫다 98년생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을 것이다 뱀 53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조심시킬 것 65년생 대상자는 반드시 내부에 있다 77년생 지인의 원조를 받아 마음 즐겁다 89년생 누워서 침 뱉기에 비유할 만하다 원숭이 56년생 경솔한 판단은 자제하라 68년생 구설 들어오니 마음을 비우자 80년생 남의 일보다 귀하의 일 신경쓰라 92년생 고집만 내세우게 되면 다툼이 있다 돼지 59년생 각별히 교통사고를 주의 71년생 초조해할 것 없다 83년생 의견 일치가 안되니 대화로 풀라 95년생 의견차 생기니 갈등 생킨다
--	---	---